

제약/바이오 (비중확대/Maintain)

기대에 부응했던 해외 헬스케어 컨퍼런스

- 지난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이슈로 우수한 주가 수익률 달성
- 주목할 만한 이슈 4가지: 면역항암제 / CAR-T / 치매치료제 / 세제 개혁
-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동아에스티 등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이슈로 우수한 주가 수익률 달성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약 450개 기업과 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제약 업종 최대 행사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씨젠, SK바이오팜 등이 초청받아 회사 현황 및 전략, 신약 파이프라인을 발표했으며, 동아에스티와 에스티팜, 툴젠 등 다수의 바이오 업체가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이번 행사가 M&A나 기술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평년 대비 다소 밋밋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업체는 셀트리온의 공장 증설, 동아에스티의 다국적 제약사와 면역항암제 공동연구 협약 등으로 기대에 부합했다는 판단이다.

주가도 이를 반영해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헬스케어주는 2.4% 상승에 그쳤지만, 국내 의약품 및 바이오주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각각 7.4%, 8.7% 상승했다(동기간 KOSPI는 포함). 이번 컨퍼런스의 주인공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동아에스티는 지난 한 주 각각 28.0%, 35.9%, 21.0% 상승했다.

매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업체 중 호재가 기대되는 종목을 선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목할 만한 이슈 4가지: 면역항암제 / CAR-T / 치매치료제 / 세제 개혁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여전히 유망한 면역항암제와 CAR-T, 역시 어려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세제 개혁을 통한 M&A 증가 등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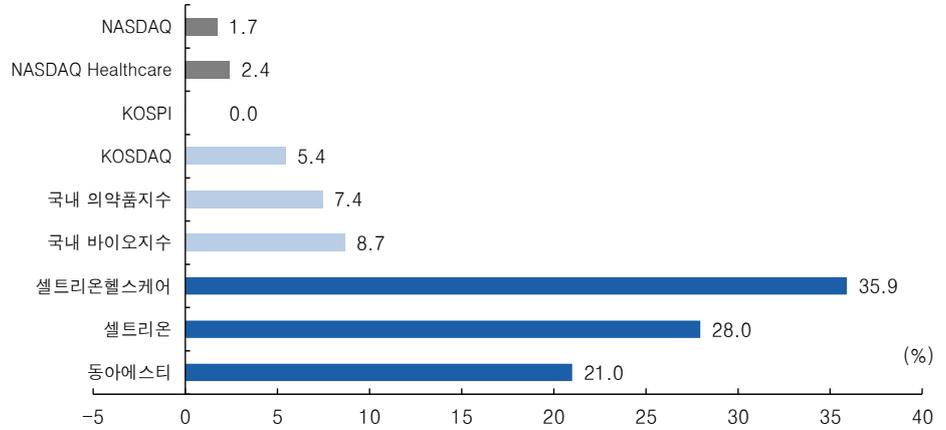
1) 여전히 유망한 면역항암제

최근 다국적 제약사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여전히 그 열기가 뜨거웠다. 여보이와 옵디보를 개발한 BMS는 이들 제품의 다양한 병용 임상 및 LAG3, IDO1, CTLA-4 저해제 등 새로운 기전의 면역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인사이트는 IDO1 저해제인 에파카도스타트의 병용 요법이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해 PD-1 저해제 단독 요법 대비 임상결과가 우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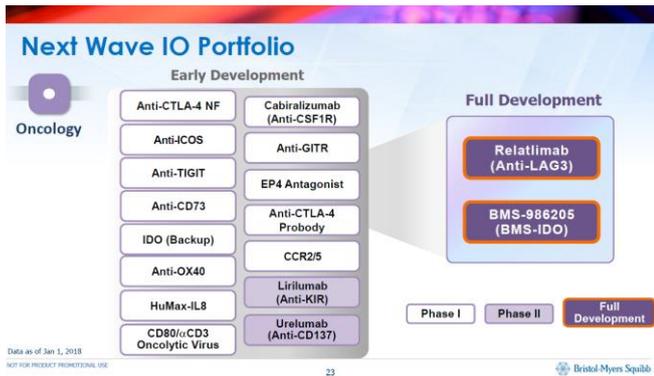
사노피와 리제네론도 PD-1 저해제인 세미플리맙(신라젠의 펙사백과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인 물질)에 약 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그림 1. 지난주 주요 지수 및 업체의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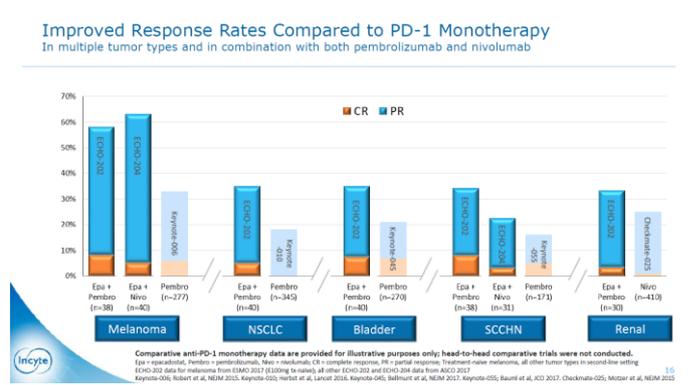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nguide,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BMS, 새로운 면역항암제 포트폴리오



자료: BMS,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Incyte, 키트루다 대비 우수한 에파카도스타트 병용 임상 결과



자료: Incyte,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2) 본격적으로 열린 CAR-T 시대

작년 8월과 10월, 각각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길리어드의 에스카타가 FDA 허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s) 시대가 개막됐다. 기존 항암제 대비 월등한 효과를 나타내며,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효과가 개선될 여지가 크기에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치료제다.

이번 행사에서 셀렉티스와 블루버드 등이 개발 중인 CAR-T 치료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히 블루버드는 2019년까지 3개의 CAR-T 제품에 대한 FDA 허가가 목표라고 밝혔다.

CAR-T 개발 경쟁에 선두 주자인 주노 테라퓨틱스도 Best in class 가능성이 있는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JCAR017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JCAR017은 킴리아와 에스카타 정도의 효능을 보이며, 부작용은 훨씬 낮은 후보물질로 알려져 있다.

3) 역시 어려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지난 6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화이자에 이어 8일 악소반트도 알츠하이머 후보물질 인테피르딘에 대한 2건의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일상 생활 및 인지능력이 개선되지 못했으며, 당일 악소반트의 주가는 57.0% 하락했다. 16년 룬드벡과 일라이 릴리, 17년 머크와 바이오젠 등이 임상시험에 연이어 실패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표 1.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실패 사례

개발사	성분명 및 프로젝트명	임상단계	당일 주가 변동률	실패 시기
Pfizer & JNJ	bapineuzumab	임상3상	-2.1%	12년 08월
Genentech	gantenerumab	임상3상	-6.6%	14년 12월
Lundbeck	5-HT6(dalopirdine)	임상3상	-4.1%	16년 09월
Eli Lilly	solanezumab	임상3상	-10.5%	16년 11월
Merck	verubecestat	임상3상	1.4%	17년 02월
Fujifilm	T-817MA	임상2상	-1.1%	17년 07월
Axovant	intepirdine	임상3상	-73.9%	17년 09월
Biogen & Eisai	BAN2401	임상2상	-3.3%	17년 12월
Pfizer	PF-05212377	임상2상	-1.1%	18년 01월
Axovant	intepirdine	임상2상	-57.0%	18년 01월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4) 세계 개혁을 통한 M&A 증가 예상

세계 개혁으로 M&A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이슈였다. 다국적 로펌인 베이커앤맥킨지는 미국의 세계 개혁과 시장 여건 개선으로 올해 헬스케어 섹터의 M&A 규모는 17년 2,770억 달러 대비 약 51% 증가한 4,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셀진은 골수섬유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임팩트 바이오메디슨을 최대 70억 달러에, 다케다는 크론병 환자의 항위복잡누공 치료제를 확보한 타이제닉스를 6.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며 M&A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컨퍼런스 중 GSK는 화이자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버텍스도 M&A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존슨앤존슨과 머크는 M&A보다는 자체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생각

표 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언급

제약사	발표자	내용
Roche	앨런 히페 CFO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매출 감소는 있을 것이나, Ocrevus/Tecentriq/Perjeta에 집중할 것. Tax reform은 긍정적
Pfizer	마이클 돌스턴 연구소장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개발 중단
JNJ	알렉스 골스키 CEO	Tax reform에도 불구하고 JNJ는 현재 전략을 고수할 것이며 M&A계획은 없음. Pharma + Tech의 시대가 올 것
BMS	조반니 카포리오 CEO	항응혈제 Eliquis에 대한 자신감 내비쳐. Opdivo의 병용 요법으로 다양한 적응증 진출할 것
Eli Lilly	데이빗 릭스 CEO	약가 인하 지속될 것으로 전망
GSK	엠마 웬슬리 CEO	환자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 인수 검토 중. 기업문화 변화를 통해 이익부분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
Sanofi & Regeneron	렌 솔라이퍼 CEO	알러지 질환 치료제 Dupixent에 주력할 것. 천식 등 적응증 확대 전략. Kevzara는 차별화가 잘 됐다고 자평
Merck	켄 프라지에 CEO	약가인하 압력은 더 이상 없을 것. Tax reform으로 M&A에 우호적인 상황이나, 머크는 자체 역량 강화에 집중
Celgene	마크 알레스CEO	Fedratinib을 보유한 Impact Biomedicines를 70억 달러에 인수(세일즈 마일스톤 45억 달러 포함)
Allergan	브렌트 손더스 CEO	안구건조증 치료제 Restasis 제네릭은 2분기까지 출시되지 못할 것. 2018년 매출액 150~153억 달러로 예상
Endo	폴 캄파넬리 CEO	아미존의 의약품 시장진출은 기정사실화. 제네릭 가격 붕괴 지름길
Vertex	제프리 라이덴 CEO	M&A 가능성 언급. 주력파이프라인(낭성섬유증) 집중 및 플랫폼기술(CRISPR, mRNA) 탐색
Shire	플래밍 온스콧 CEO	차세대 신경과학부문과 매출에 기여하는 희귀질환 부문을 분할 및 추후 상장계획
Mylan	헤더 브레쉬 CEO	미국 제네릭 약가는 여전히 혼돈.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제네릭 출시로 약가 부담 덜어줄 것
Axovant	데이빗 형 CEO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intepirdine에 대한 2건의 임상시험 모두 실패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국내 업체들 이슈

국내 업체 중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동아에스티 등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미약품은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HM15211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후보물질 HM43239, PD-1 & PD-L1의 이중항체 등을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3공장 CAPA를 기존 발표했던 12만 리터에서 36만 리터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동아에스티는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항암제에 대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그밖에 미국 FDA에 수면장애 치료제에 대한 신약 승인신청을 완료한 SK바이오팜, 이미징 마켓 트랙이 아닌 메인 트랙에 배정 받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3가지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발표한 에스티팜, 특이성 항상 CRISPR와 기능성 강화 CAR-T 등을 소개한 툐젠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 업체의 주요 성과

기업	내용
한미약품	NASH 치료제와 백혈병 치료제, 이중항체 등 소개
셀트리온	상반기 내 36만 리터 규모의 3공장 부지 선정.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고농도 제품으로 개발 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	누적 10개 기업과 15개 제품에 대해 33억 달러 수주. 15개 이상 기업과 30개 이상 공급계약 협상 중
SK바이오팜	수면장애 치료제 SKL-N05와 뇌전증 치료제 Cenobamate 소개
씨젠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동시다중 리얼타임 PCR 시약 소개
LG화학	대사질환 및 면역항암 분야에 R&D 역량 집중,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동아에스티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항암제 공동연구 협약
에스티팜	대장암치료제, 혈전증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등 3가지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표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 항체신약 HL161의 기술수출 논의
툐젠	특이성 항상 CRISPR와 기능성 강화 CAR-T 등을 소개

자료: 언론보도,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기대에 부응했던 해외 헬스케어 컨퍼런스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75.50%	16.00%	8.50%	0.00%

*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